

혁명에 대한 알레고리로서의 「구운몽」

최 윤 경 (전남대) · 임 환 모 (전남대)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결론을 대신하여 |
| 2. '주권적 개인'의 탄생 | - 혁명에 대한 성찰적 주체의 환기 |
| 3. 망실된 혁명의 알레고리 | |
| - 몽유병자와 혈거인 | |

국문초록

최인훈의 「구운몽」은 4·19와 5·16이 교차했던 1960년대 초반의 혼란했던 정치현실에 대한 우의로 독해하면 작품의 의미가 보다 더 분명해진다. 4·19와 5·16은 1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1960년대 초반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구운몽」에서는 두 사건이 동시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시간적 질서가 와해된 서사구조 속에서 4·19는 주인공 '독고민'에게 망실(忘失)된 혁명으로 경험된다. 최인훈은 4·19의 정신에 '세계인'이 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 점에서 4·19를 '역사'의 시원으로 파악한다. 이때의 세계인이 '주권적 개인'의 의미와 상통한다. 「구운몽」에서 독고민은 사회적 규범이나 강제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구성하는 '주권적 개인'의 탄생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러한 독고민이 동시대에 몽유병자로 만들어지고 어느 미래에 퇴화된 혈거인으로 발굴됨으로써 망실된 혁명의 알레고리가 된다. 여기에서 어떤 시대가 개인에게 그 시대의 병리학적, 퇴행적 증상을 전가한 것으로 의미화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구운몽」은 4·19를 응당한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밀한 전언이 들어있으며 자기가 속한 시대에 대한 성찰적 주체의 개입을 환기한다는 점에 그 문학적 의의가 있다.

주제어 : 구운몽, 주권적 개인, 망실된 혁명, 성찰적 주체

1. 서론

최인훈은 4·19와 5·16이 교차했던 1960년대 초반을 ‘세상 아닌 세상’으로 파악했다. 「구운몽」(1962)¹⁾은 작가가 파악한 부정(不正)의 시대를 무대화함으로써 여전히 부정한 ‘지금 여기’의 문제를 환기한다. 「구운몽」은 네 개의 서사가 교차되며 중층적으로 구성되어 있다.²⁾ 스토리 차원에서 보면, ‘독고민의 서사’, ‘신경외과 의사의 서사’, ‘고고학자의 서사’, ‘연인의 서사’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이 플롯의 차원에서는 네 개의 서사가 상호 겹치거나 교차한다. 독고민의 서사 정보는 현재 시점에서 초점화되어 서술되다가 신경외과 의사의 초점화 서술에서 대상화된다. 또 다시 ‘독고민의 서사’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고고학자의 유물로 발굴된다. 그러한 고고학자의 작업이 영화로 제작되어 상영되고 이 영화를 관람한 연인의 대화에서 독고민의 서사 정보가

1) 최인훈, 「구운몽」(1962),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2012.

2) 이는 선행연구에서 액자구성으로 파악되며(김기주, 「상징계 진입의 고통, 혹은 표류하는 기호들-최인훈 「구운몽」 새롭게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0, 14-6면 참조.)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액자구성은 러시아의 마뜨로슈까 인형처럼 맨 안쪽에 독고민 이야기가 있고 이를 신경외과 의사, 고고학자, 연인의 이야기가 순차적으로 감싸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각각의 이야기는 액자형식 안에 오롯하게 담기지 않는다. 각각의 이야기 자체가 겉과 속이 분명하게 나뉘지 않고 상호 교차하면서 오히려 몽타주되고 있다.

다시 한 번 서술된다. 「구운몽」에서 ‘독고민’은 1960년 초반의 현재와 어느 미래의 두 시간 축이 몽타주되면서 다르게 변주된다.³⁾ 이렇게 텍스트의 형식을 이해할 때 ‘독고민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 「구운몽」을 관통하는 핵심적인 물음이다. 그런데 독고민의 정체성 해명은 쉽지 않다.

논자들의 독고민에 대한 이해가 매우 상이하게 드러나는데 이런 현상은 독고민의 정체성 규명이 난제임을 반증한다. 선행연구에서 독고민을 “자신의 삶조차 규정할 능력이 없는 무지하고 무력한 개인”⁴⁾으로 보는가 하면, “타자의 접속을 용인하지 않는 익명적인 존재”⁵⁾로 전혀 다르게 이해하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개인 세우기’와 외부와의 연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존재”⁶⁾로 보거나 4월 혁명의 희생자로 규정하기도 한다.⁷⁾

문제는 네 개의 몽타주 형식으로 구성된 「구운몽」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이다. 권명아는 「구운몽」에서 혁명의 ‘깡쟁’을 읽어내고 있다. 그에 따르면 4월 혁명의 세계로 들어가는 일은 살아남은 자의 회고 형식으로는 불가능하며⁸⁾ 죽은 자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구운몽」은 죽은 자의

3) 최현희는 「구운몽」의 액자구성이 사후적으로 앞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도록 요구한다고 본다. 완결된 것으로 보였던 서사는 그 바깥에 위치하는 서술자를 통해서 그 의미가 새로이 해독되어야 할 것으로 재발견된다는 것이다. (최현희, 「반복의 자동성을 넘어서-최인훈의 「구운몽」과 정신분석학적 문학비평의 모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4,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본고는 그러한 「구운몽」 텍스트를 이해하는 데 최현희의 ‘사후성의 원리’에 빛을 졌다. 그런데 최현희의 논의는 ‘정신분석학적 방법론’을 분석틀로 삼고 있으며 「구운몽」이 태동한 시대사적인 맥락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은 점에서 본고와 구별된다.

4) 이인숙, 「최인훈 소설의 담론 특성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118면; 김미영, 『최인훈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설혜원, 「최인훈의 몽유소설 연구-「구운몽」 「금오신화」 「서유기」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5, 36면; 최은혁,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표출 양상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16, 133면.

5) 정영훈, 『최인훈 소설의 주체성과 글쓰기』, 태학사, 2008, 59-64면.

6) 성지연, 『최인훈 문학에서의 ‘개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3, 68면.

7) 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 혁명과 간통, 사랑과 소유권」, 『문학과 사회』, 2010 봄호.

8) 「문학에 있어서 4·19세대의 유산과 한계에 대한 평가는 문학과지성으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적’ 지식인 그룹과 창작과비평으로 대변되는 ‘민족주의적’ 지식인 그룹 사이의 논쟁으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4·19혁명의 유산은

미완의 꿈이 미래로 송신되며 혁명에 대한 새로운 서사를 창출한다는 그의 논점은 일견 타당성이 없지는 않다. 다만 사물의 화려한 외양과 그 내부에 깃든 다가올 폐허와 몰락을 읽어내는 동시에 갱생을 떠올리는 벤야민의 ‘알레고리 정신’⁹⁾이 정당성을 갖는다면 폐허에서 되살려낼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꿈을 밝히기 위해 폐허에 대한 직시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¹⁰⁾ 그런데 「구운몽」에서 폐허와 성찰, 이 둘의 연관항 속에서 ‘갱생’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본고는 「구운몽」에서 폐허로 드러나고 있는 혁명과 이에 대한 성찰의 문제에 주목하여 그것의 현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19와 5·16은 1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1960년대 초반에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런데 「구운몽」에서는 두 사건이 동시적으로 배치되고 있다. 시간적 질서가 와해된 서사구조 속에서 4·19는 서사 주체에게 망실(忘失)된 ‘혁명’으로 경험된다. 최인훈은 「구운몽」을 “군사반란 다음해에”, “내란이 벌어진 어느 가공의 도시에서 헤매는 영문 모르는 개인의 희극적인 모습”을 그린 것은 “현실의 어이없음에 맞먹는 표현형식을 실천하고 싶은 깊

자유주의와 민중 지향적 지식인들 중 과연 누가 그 유산의 적자인가라는 논의 형식을 반복한다. 여기에서 4월 혁명에 내포되었던 혁명의 열정은 두 지식인 그룹의 현재적 정체성 규명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전유된다. 실상 혁명의 유산을 둘러싼 이러한 전유의 방식은 4월 혁명 그 자체에 내재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4월 혁명은 그 열정과 그 소유권이 자유주의의 이름으로든, 민중 지향적 지식인의 이름으로든, 청년 남성 지식인으로 전유되었던 것이다.”(권명아, 위의 글, 281면.)

9)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2014, 287면.

10) 전통적 알레고리가 한 사물의 속성을 다른 사물의 외피에 의지하여 ‘다르게 말하는 것’에 불과한 반면 보들레르의 시학을 경유한 벤야민이 보기에 알레고리는 모든 환상에 대한 파괴적인 힘을 내면화하고 있다. (황현산, 『웁긴이의 말』(발터 벤야민, 김영옥·황현산 역,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외』, 길, 2013) 참조. 벤야민에게 알레고리는 ‘최초의 약속-유평의아적 내용, 행복’을 되찾기 위한 ‘방법적 파괴’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벤야민의 사유에 착안하여 최인훈이 『구운몽』에서 4·19 혁명이 ‘망실’의 자리에 놓인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를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은 충동”¹¹⁾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한다. ‘현실의 어이없음[5·16]’에 대한 대타항으로 희극적인 개인[4·19]을 놓은 것이다. 「구운몽」에서 ‘독고민’이 ‘희극적인 개인’에 필적한다. 그런데 「구운몽」에서 4·19와 5·16의 시간차가 소거되어 5·16이 무대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고민은 결과적으로 망실된 혁명의 표지가 된다. 따라서 최인훈이 「구운몽」에서 이렇듯 혁명을 망실된 것으로 서사적 실험을 한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탐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은 독고민이 누구인가, 독고민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하는 물음을 해명하는 가운데 고찰될 것이다.

2. ‘주권적 개인’의 탄생

흔히들 소설은 하나의 세계를 다룬다고 말한다. 이때 하나의 세계에서 전경화되는 인물은 그 세계에 대한 흔적의 담지자로서다. 「구운몽」에서 독고민이 1960년대 초의 혼란했던 시대상을 부조한다. 그런데 몽타주된 겹서사 속에서 다층적으로 전유되고 있는 이 인물의 정체성 구명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구운몽」의 겹서사 가운데 맨 앞에 ‘독고민의 서사’가 자리한다. 독고민은 현재 조그만 간판 가게 직공이며 “그저 어 하면서 스물일곱 해를 살아온 사람”¹²⁾으로 자신을 시시하게 생각하는 인물이다. 생활은 “늪은이 뼈마디처럼 덜거덕거리는” “낡아빠진 바라크 아파트”에 세 들어 사는 곤궁한 처지에 있다. “이 추운 겨울날” “불도 없는 찬 방 침대에 자면서도 독고민이 아직껏 죽지 않은 것은” 첫사랑 ‘숙’과의 “달콤한 추억”이 있기 때문인데 숙이 자취

11) 최인훈, 『화두1』(1994), 문학과지성사, 2008, 379면. 『화두』는 최인훈의 글쓰기 형식과 방법론을 집대성한 ‘실험적인 소설’이며 작가가 앞서 발표했던 문학작품들이 메타적으로 언급되고 있다.

12) 최인훈, 「구운몽」,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2010, 239면. 이하 본문에서 괄호 안의 ‘면’ 표기를 생략한다.

를 감추었다. 독고민은 “어차피 자기 같은 사람에겐 과분한 여자였”(222-223)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는 중이다. 이렇듯 「구운몽」은 독고민의 삶의 세부, 구체적인 일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데 ‘숙’이 보낸 편지를 받고 그녀를 만나러 나가면서부터 독고민은 낮선 무리의 사람들과 조우하며 알 수 없는 사·공간의 ‘미궁’을 헤맨다. 시인·은행원·무용수·여급의 무리들이 “선생님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결심하시는 것이 사장님의 의무입니다.”라고 말하며 독고민을 쫓는다. 무리의 사람들은 “자꾸 무엇인가 말해달라”(239)고 하며 독고민에게 ‘선생님, 사장님 등의 어떤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강제]한다. 이에 독고민은 “사람들의 눈길이 마치 쇠줄처럼 살살이 그의 몸뚱이를 둘러싼 가운데” 자신이 “초롱 속 새’된 것으로 느낀다. 독고민은 실어증에 걸린 듯 거의 말을 하지 않는데 자신이 자신에 대한 피력이 필요할 때면 말문을 연다. 무리의 사람들에게 자신은 ‘독고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간판사이고, 현재 ‘숙’을 찾고 있다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표명한다. 그러한 독고민의 행위는 사회적 관습이나 강제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행위규칙을 스스로 정하고 그 규칙에 따르는 자기입법[자지배]을 보인다. 자기입법은 자신에 대한 존중과 긍지를 전제하며 그러한 속성을 갖춘 인간이 ‘주권적 개인’¹³⁾이다. 「구운몽」에서 자신의 ‘실존’을 위협하는 무리의 사람들과 대치중에 있는 독고민은 니체의 이른바, ‘주권적 개인’의 출발점에 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운몽」은 독고민이 자신의 현재적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과 사람들 각각의 입장에서 독고민을 다르게 호명하는 방식 사이에 서사적 의미망이 자리한다. ‘홍약범’이라는 죄목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역시 독고민은 자신이 무고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표명한다.

“어디로 가는 겁니까?”
 “감방으로.”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13) 백승영, 『니체』, 한길사, 2015, 177-209면 참조.

“그러니까 잡는 거야!”

“죄가 없는데요……”

“몇 번 말이나 해야 아냐! 죄 업수니까 잡는다고 말이나 하지 않았냐!”

독고민은 이 간수가 일본 사람이구나 했다. 일본 사람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간수 노릇을 하다니. 벌써 15년 전에 없어졌을 왜놈들이. 어떤 문 앞에서 간수는 멧었다.

“정말 전 아무 죄 없습니다.”

“바까야로. 센징와 송아 나이!”

간수는 눈에서 불뚱이 튀게 민의 뺨을 후려갈기고는, 방문을 획 열고 독고민을 처넣었다. (296-297면)

독고민이 죄가 없어서 ‘잡는다’는 간수의 말은 ‘법치주의’라는 ‘표준과 규범’의 효력을 정지시킨¹⁴⁾ 법[국가권력]의 자기폭로에 다름 아니다. 카프가의 『소송』에서 K는 어느 날 아침, 뚜렷한 혐의 없이 체포되고 심금을 알 수 없는 심판이 계속된다. 독고민 역시 난데없이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정당한 법의 절차가 실종된 상태에서 K나 독고민 같은 시민에게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K가 자신이 법치국가에 살고 있는 사실을 상기하고, 독고민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법의 부당성[자의성]을 심문하는 역할을 한다.

독고민의 미궁 속 헤매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독고민의 귀에 ‘혁명군’과 ‘정부군’의 방송이 교차로 들린다.¹⁵⁾ 혁명군 방송은 경어체로 ‘자유’를 강조하며 압제자들에 맞서기 위해 무장하고 거리로 나오도록 시민들을 독려한다. 이에 반해 정부군 방송은 ‘질서’를 강조하며 반란군의 출두를 지속적으로 명

14) 김향, 「알레고리로서의 4·19와 5·19」, 『상허학보』30, 상허학회, 2010, 197면.

15) 「구운몽」에서 ‘방송의 소리’가 서사를 추동하는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서은주는 최인훈의 소설 가운데 「구운몽」, 『서유기』, 「총독의 소리」, 「주석의 소리」에서 ‘방송의 소리’가 다양한 집단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매개적 장치가 되고 있다고 본다. (서은주,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방송의 소리’ 형식 연구」, 『배달말』 30, 배달말학회, 2002) 「구운몽」의 ‘독고민의 서사’에서 혁명군과 정부군의 방송 외에 바티칸 방송이 서사화된다. 미궁을 헤매던 독고민은 정부군에 의해 혁명군 수령으로 지목되며 광장에서 사살되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러한 독고민의 죽음에 ‘바티칸 방송’에서는 화평사절로 한국에 보내진 대주교의 순교로 설명된다.

령한다. 반란군의 출두의 조건은 갖은 비리와 폭력, 부도덕한 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부군과 혁명군의 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유일한 사람이 독고민이다.¹⁶⁾ 급기야 정부군 방송에서 반란군의 수령으로서 독고민을 추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보낸다. 독고민이 네 방향에서 쏟아져 나오는 ‘군중’에 쫓기다가 이른 곳이 광장이다. 군중이 독고민을 광장으로 몰아온 것인데 여기에서 독고민을 ‘광장’으로 몰아온 군중이 다름 아닌 시인, 은행가, 댄서, 여급의 무리다. 광장을 둘러싼 고층 건물들 꼭대기 열린 창문에서는 사람들이 기관총을 들고 독고민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 가운데 ‘숙’을 발견한 독고민은 자신이 그녀의 애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명을 요청한다. 그런데 숙에게 독고민은 애인은커녕 그 존재조차도 기억되지 못한다. 그러한 사건의 정황이 ‘정부군의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된다.

긴급 뉴스입니다. 악한 독고민은, 마지막 순간에 한바탕 추태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분과 반란 현장에 대한 부재 증명을 한다고 울부짖으면서, 정부 모某 고관의 부인을 지명했는데, 재판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정부의 종용으로 현장에서 독고민과 대질한 전기 부인은, 명확히 이를 부인했습니다. 이로써 재판은, 범인 자신이 신청한 증거까지도 공정히 살핌으로써,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구현한 것입니다.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정부군 사령부는, 전기 명령을 재확인하고 이의 집행을 명령합니다. 신평탄이 곧 발사될 것입니다. (312-313면)

이렇듯 독고민이 첫사랑인 숙을 찾아서 헤맨 시간은 숙의 배반으로 환수된다. 광장에서의 이 일은 정부군의 방송에서 독고민의 ‘추태’로 곡해되며 결국 독고민은 ‘1분간 집중 사격’된다. 최인훈의 「광장」에서 이명준은 “남의 나라” “혁명의 풍문만 들었을 뿐” 우리에게는 “주체적인 혁명 체험이 없었다는데 비극이 있다”고 보며 우리의 “조건에 어울리는”, “우리한테 맡겨진 혁명”¹⁷⁾을 사유한다. 「구운몽」에서 독고민은 이명준이 꿈꿨던 ‘혁명’의 ‘광장’에

16) 네 무리의 사람들-시인들, 은행가들, 댄서들, 여급들-에게 혁명군의 방송은 들리지 않거나 다르게 들린다.

17) 최인훈, 「광장」(1960),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2010, 157면.

들어선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독고민이 군중에 쫓기다 들어선 이 광장은 시민적 ‘자유’가 구가되는 영역이 아닌 ‘학살’¹⁸⁾의 장소로 표상되고 있다.

그렇듯 광장에서 집중 사격된 독고민은 개처럼 돌기둥에 걸쳐진다. 그리고 이제까지 독고민을 선생님, 사장님, 여보로 호명해왔던 무리의 사람들은 기쁨을 만끽한다. 이제까지 독고민을 광장으로 이끌었던 네 무리의 사람들의 행위가 독고민의 학살로 귀결되는 장면이다. “할 일을 마친 사람들이 저마다 나왔던 길로 광장에서 물러”(314)가는 데서 독고민을 따르던 사람들의 자기 배반이 부각되는데 이는 1960년대 초의 혼란상을 부조한다. 4·19의 ‘자유’¹⁹⁾가 폐기되고 대신 ‘빵’에 대한 요구가 절실했던 당대적 분위기 속에서 ‘빈곤’에 대한 돌과구로 5·16을 목인한 지배적인 분위기가 있었다.²⁰⁾ 아렌트가 지적하듯 “전제나 억압과 벌인 투쟁에서 불행과 빈곤의 막강한 위력을 선용하고 악용했다.”²¹⁾는 것이 인류사에서 파악되는 대다수의 혁명의 이력이기도

18) 최인훈의 『회색인』(1963)에서 ‘준’의, 드라쿨라가 어쩌다가 흡혈귀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은 내가 -드라쿨라가 신神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발전해서 드라쿨라를 ‘검은 신약新約’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낸다. “그[드라쿨라]는 주주가 되기를 택했다. 이렇게 해서 밤의 포교가 시작되었다. 낮에는 이미 땅을 차지한 승려들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다. 적들은 마귀가 다니니 문단속을 하라고 선전했다. 파우스트는 타협했으나 드라쿨라는 학살되었다. 파우스트는 적의 진영에 타협하여 작위를 받았으나 드라쿨라는 학살되었다. 그가 십자가 그림자에 걸려서 그 그림자 속에서 타 죽은 것은 얼마나 상징적인가. 드라쿨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다. 거저 상식과 비열한 평화를 뜻하는 그 갈보리의 십자가에. 이렇게 해서 그는 주가 되었다. 왕관과 천사군과 나팔과 처벌로 표현되는 지배자의 의상을 벗어버리고, 반역과 뒤따르는 밀정의 무리와 고문과 사랑의 호소로 표현되는 반란자叛亂者의 모습으로 학살된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검은 신약의 주인공이 된 것이다.”(최인훈, 『회색인』, 문학과지성사, 2012, 360-361면.) 준의 상상에서 ‘독고민-드라쿨라-비타협-학살’과 그리고 ‘숙-파우스트-타협-작위’의 두 개의 계보가 형성된다.

19) 이는 4·19가 ‘기적과도 같은 초유의 자발성 속에서 어떤 환멸도 겪지 않는 순결한 젊은이들의 사건, 한 점 균열 없이 황홀할 만큼 일체화된 공동의 경험’(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28면)으로 이야기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20) 권보드래·천정환, 위의 책, 47-51면 참조.

21)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혁명론』, 한길사, 2012, 200면.

하다. 그렇듯 빈곤의 문제와 직결된 5·16에 대한 묵인, 그 ‘오해’의 늪이 있었다.²²⁾

‘독고민의 서사’에서 광장에서 독고민이 죽은 것은 아니었다. 혁명군의 일원인 ‘젊은 여인’이 독고민의 방탄복을 벗기고 들은 광장을 떠난다. 혁명군 조직이 드러남에 따라 혁명군의 수령으로서 독고민은 ‘나라 밖’으로 나가도록 결정된 것이다. 이제까지 독고민은 간판사 직공으로서 애인 숙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관철되었다. 그런데 나라 밖을 향하는 배에서 독고민의 그러한 입장이 위기를 맞는다.

①민은 아까부터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야릇한 헛갈림에 빠져들고 있다.②나는 정말 이 사람들의 수령이 아닐까. 아니다. 이 사람들에게 홀리면 안 된다. 그러면 다시는 숙을 못 만난다. 하지만 숙은, 아까 광장에서 내가 총 맞아 죽을 때도 건져주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하자 왈칵 서러워진다. 무슨 까닭이 있을 것이다. 아까 노인도 자꾸 사랑하라고 했다. 필시 그녀에게 무슨 사정이 있었으리라. 아니 사정이 없어도 좋다. 그녀가 몰라도 좋다. ... 이 사람들에게 홀리면 안 된다. 어떤 유혹이 와도 물리치리라. ③집착할 아무 까닭도 없어진 사람이, 집착할 아무 아무 까닭도 없어진 사람에게 매달리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바보는 끝까지 바보였다. 독고민은 앞 창문을 통해 어둠을 내다본다. 허虛가 허虛를 보고 있다. 그녀는 민의 옆모습을 황홀하게 바라보면서 그녀대로 판생각을 하고 있었다. ④오늘밤 이 수줍은 애인을 데리고 자취야지. ⑤배가 해안을 떠날 때. 그녀는 오랜 사이를 두고 수령에게 바쳐온 짝사랑이 이제 열매를 맺는 것을 생각하면,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돌이켜볼 짬이 없었다. 그녀는 수컷을 잡은 암호랑이처럼 자랑스러웠다. (328-329면, 원문자와 밑줄은 인용자 표시)

22) 그 예로 함석헌을 들 수 있다. 함석헌은 5·16이 그 뜻에 있어서 4·19와 다를 것이 없다고 한다. 칼을 든 것이 큰 일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먼저변에 못한 것을 하려 분통을 터치고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이 전보다 強力的으로 되는 이것은 자연한 일”(함석헌, 『인간혁명』, 일우사, 1961, 280면.)이라는 것이다. 이보다 앞서 “善意의 獨裁란 ‘내용 없는 빈말’이며 ‘강간이 사랑이 아니듯 독재 역시 선일 수 없다’는 것으로 5·16을 ‘공박’한(함석헌, 『5·16을 어떻게 볼까』 (1961.7), 『사상계 영인본』, 1989, 190면 참조.) 함석헌은 4·19에서 5·16에 이르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 길을 잃었던 것이다.

예문은 자유간접화법적인 형식²³⁾ 속에서 서술자와 작중인물의 목소리²⁴⁾의 경계가 지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①·③·⑤가 서술자, ②는 작중인물인 독고민, 그리고 ④는 역시 작중인물인 ‘그녀’의 목소리다. 먼저 서술자[①]에 의해 설명되는 바, 독고민[②]은 지금 혁명군의 수령이나, 숙이나 하는 두 개의 선택지 속에서 ‘아름한’ 헛갈림의 상태에 있다. 광장에서의 숙의 배반을 인식하지 못하며 ‘이 사람들[혁명군]에게 홀리면 안 된다’고 되뇌는 미망(迷妄)에 빠져있는 것이다. 실인즉 독고민은 지금 숙에게 홀려 있으며 이에 대한 ‘각성’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있다. 그런데 독고민의 선택이 ‘숙’으로 기울어진다. 독고민이 그러한 인식을 보이는 데서 독고민에 대한 서술이 ‘정지’된다. 곧바로 서술자[③]의 ‘독고민’과 그녀 안으로 들어가기가 수행되며 둘의 현재적 상황이 ‘히’가 ‘히’를 보고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 서술자에 의해 설명되는 그녀는 지금 탄생각을 하고 있다. 그녀[④]는 독고민을 수령이 아닌 애인인 듯 생각[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서술자[⑤]의 ‘그녀’ 속으로 들어가기가 수행되며 그녀가 이제까지 혁명군으로 수행해온 일이 ‘수령에게 바친 짝사랑’으로 전환된다. 짝사랑이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는 생각에 빠져 ‘자기가 맡은 사명’을 돌아볼 틈이 없는 그녀는 지금 수컷을 포획한 암호랑이가 되어, 수령을 사랑하기도 전에 배반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서술의 묘미는 서술자의 목소리에서 독고민과 그녀가 ‘히’로 설명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독고민이 헛갈림에 빠져있고, ‘그녀’가 탄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히’는 두 인물의 ‘인식공백’을 지시한다. 벤야민에게 현

23) “자유간접화법에서 서술자는 등장인물의 언어를 선택한다, 아니 등장인물이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말하는 것이라고 해도 좋다. 그래서 그 음성이 한데 합쳐진다.”(제라르 즈네트,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162면) 그런데 「구운몽」의 위 예문에는 한 문장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서술자와 등장인물의 목소리의 경계가 지워져 있다.

24) 서술자와 두 작중 인물 중 어느 쪽이 더 신뢰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하는 문제에서 작중인물들은 ‘헛갈림에 빠져들’었고, ‘탄 생각’에 빠져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놓치고 있는 만큼 그 둘의 목소리는 서술자에 비해 신뢰할 수 없는 목소리다. 그렇다면 서술자는 신뢰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논외로 한다.

재인 ‘지금-여기’는 주체가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인식함으로써 현재적 삶을 새롭게 조직할 수 있는 가능성의 시간이다. 그러나 현재에 인식되지 않는 과거는 현재와 함께 사라지며 ‘적’들의 수중에 떨어지게 되는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다.²⁵⁾ 「구운몽」에서 독고민과 그녀의 인식공백으로 드러난 그 ‘허’의 시간이 벤야민의 ‘지금-여기’에 다름 아니다. 서술자가 인물들 속으로 개입해 들어간 것이 바로 그 순간이며 이때 독고민과 그녀의 인식이 ‘정지’되어 발화가 통제된다.

여기까지가 ‘독고민의 서사’다. 혁명군의 수령으로 오해되어 나라 밖으로 나가는 배에서 맞닥뜨린 독고민의 ‘허-인식공백’의 시간은 ‘주권적 개인’의 위기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독고민의 ‘허-인식공백’의 시간이 현재적 시점에서 ‘신경외과 의사의 서사’와 미래 어느 시점에서 ‘연인의 서사’에서 전유된다. 독고민의 ‘허’의 시간은 신경외과 의사와 연인에 의해 결정된다.

3. 망실된 혁명의 알레고리-몽유병자와 혈거인

독고민은 낯선 무리의 사람들의 사회적·정치적 입장에 따라 자신을 호명하는 방식에 맞서 삶을 스스로 구성하려는 ‘주권적 개인’을 보여주었다. 나라 밖으로 향하는 배에서 인식공백을 보이며 위기를 맞지만 독고민의 자신에 대한 현재적 입장이 철회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신경외과 의사의 서사’에서 ‘독고민의 서사’가 전유되며 독고민에 대한 독해가 이루어진다.

‘독고민의 서사’에서 ‘감사역-노인’과 ‘빨간 벡타이-시인’이 ‘나라 밖’을 향하는 독고민과 ‘그녀’를 배웅하며 대화한다. 그리고 한 줄을 띄어서 신경외과 김용길이 초점화되고 있는 서술이 이어진다. 김용길은 국내외적으로 이름 있는 신경외과 의사로서 ‘성공’했다. 현재 김용길은 2층 원장실에서 병원 들을

25)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5』, 길, 2009, 333-337면 참조.

내려다보고 있다. 그런데 뜰 가운데 있는 분수를 동상을 옮겨낸 대석처럼 허전하다고 느끼고 있는 데서 독고민이 집중 사격당한 ‘광장’을 연상시킨다. 이로써 독고민이 김용길에게 독해[대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용길은 ‘한국 심령학회에서 내는 계간 잡지’ 『프시케』를 읽는데 옛날, 발원發願하여 극락으로 길을 떠난 토끼·말·코끼리 세 마리의 짐승 이야기다. 세 짐승이 고해의 강을 건널 때 서로 자기가 더 고생했다는 데서 시작된 ‘점잖지 못한’ 싸움이 관세음보살의 깨우침으로 중재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세 마리의 짐승은 ‘자기 분열이 없는 소박한 고대인’을 대리하면서 ‘한 인간의 각각의 구석’을 나타낸다. 토끼·말·코끼리는 각각 의식·전의식·무의식을 상징하고 이것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다투는 형국을 보여주는 것이 현대인의 자기분열이다. 그런데 고대에는 인간의 현실과 인식의 양자 사이에는 차액이 없거나 무시되며 그런 점에서 세계[공동체]는 완결되어 있었다.²⁶⁾ 이에 비해 현대는 ‘좌절의 시대’, ‘난파의 계절’이며 그 속에 사는 ‘현대인의 인격적 상황은 극심한 자기분열’에 시달리는 것으로 그려진다. 이렇듯 의사 김용길은 현대인의 자기분열을 전제하며 세 짐승처럼 “처음부터 가라앉지 않도록 뜰 주머니를 주고, 분열하지 않도록 코르셋을 주자”(336)고 생각한다.

바다처럼 방대한 조직과 풍문보다 불확실한 뉴스 문화의 홍수 속에서 개인의 해체를 막고 그의 허리를 죄어줌으로써, 그 한 자루의 대[竹] 빗자루처럼 평 하니 설 수 있게 해줄 코르셋은 과연 무엇인가.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현대인 속의 고대인이다. 배움도 적고 겪음의 너비도 좁은 사람들의 정신질환이다. (337면)

문제는 현대가 ‘개인의 해체’의 위기에 처해 있으며 그것을 막아줄 ‘코르셋’이 필요한데 그것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방대한 조직과 불확실한 뉴스 문화의 홍수 속에서 개인의 해체가 가속화된다. 그것은 현대인 속의 고대인, 즉 ‘한 인간의 각각의 구석’이 개인의 정신질환을 야기한다는 의미이다. 배움도 적고 겪음의 너비도 좁은 현대인의 비극이다. 김용길의 인식에는

26) 최인훈, 「문학과 현실」, 『문학과 이데올로기』, 문학과지성사, 2009, 32면 참조.

고대인을 인간과 구분되는, 사유능력을 갖지 못한 동물의 차원에 두고 있는 것인데 이는 신경외과 의사 김용길의 현재적 관점에서 그러할 뿐이다.²⁷⁾ 고대인에 대한 김용길의 이러한 인식은 “박사가 고안한 뜰 주머니는 자꾸 공기가 새고, 코르셋은 노상 터져 나왔다.”(337)고 하는 데서 드러나듯 김용길의 자의식의 모순, 한계적인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나 김용길이 신경외과 의사라는 사실에서 고대인의 특성을 정신질환을 규정짓는 것은 ‘진단’의 성격을 갖게 되며 독고민의 ‘인식공백’에 어떤 틈입을 예비한다. 신경외과 의사와 조수(‘빨간 넥타이 시인’)에 의해 독고민이 몽유병자로 만들어지는 문제적인 지점이 여기에 관계된다.

인기적. 박사는 뒤돌아봤다. 조수였다. 빨간 넥타이가, 대학 갓 나온 풋내기 티를 더 돋우어준다. ...

“자네 논문은 어떤가?”

“네…… 한번쯤 더 해봤으면 싶은데, 확실치 않은 데가 있어서요.”

“무얼 말인가?”

빨간 넥타이는 대답 대신에 손으로, 해부하는 시늉을 해 보였다.

“왜, 하면 되잖나?”

“시체가 떨어졌습니다.”

...

간호부장이었다. ...

27) 그러한 김용길의 인식은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 주장과 닮아있다. 데카르트는 인간을 두 개의 실체로 분리시키며 인간과 달리 이성적 혼[사유하는 정신]이 없는 동물의 몸은 기계와 같다는, ‘동물기계론’을 주장한다. 인간과 동물을 별개의 차원으로 보았던 데카르트와 달리 라메트리는 동물과 인간 사이의 유사성에 주의할 기골이다. 그러한 라메트리는 물질 안에 어떤 새로운 능력이 가능태의 형태로만 존재한다고 보는 고대인의 물질관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라) ‘혼’을 식물혼, 감각혼, 이성적 혼의 세 종류로 구분하는데 그 가운데 동물과 인간에 공통되는 감각혼에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데카르트가 인간의 고유한 특징으로 제시한 ‘사유’는 감각능력에 불과하며, 이성적 혼은 개념들을 숙고하고 추론하는 데 적용된 감각혼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바보나 천치는 사람의 형상을 한 동물이며, 총기 넘치는 원숭이는 다른 외모의 작은 사람이 된다. (여인석,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과 뇌의 문제」, 『의철학연구』7, 한국의철학회, 2009 참조.)

“무슨 일이오”

“제7병동 앞 벤치에서 동사자가 발견됐습니다.”

“뭐? 입원 환자란 말인가?”

“아닙니다. 외래인인 모양입니다.”

...

“뭐, 독고민?”

...

“그런데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을까? 환자도 아니라면……”

“혹시 몽유병잔지 않니까?”

박사는 제자의 재치 있는 농담에 껄껄 웃었다.

“직업이라……무직……가족이 없고……본적이 황해도……독신……자네 뭐라고 했지, 몽유병자라구?”

그 순간 원장과 충실한 조수는 꼭 같이 어떤 생각을 했다. 바꾼 눈짓은 그 생각이 같은 내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었다. (337-340면)

김용길의 조수는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을 위해 해부용 시체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때마침 간호원이 병원 병동 앞에서 ‘독고민’이라는 무연고의 동사체가 발견됐다는 사실을 알린다. 이에 조수와 의사 사이에 독고민이 몽유병자일 수 있다는 ‘농담’을 주고받는다. 여기에서 몽유병자가 어떤 개인이 자신의 주관성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개인 해체]를 가리킨다고 할 때 독고민의 ‘인식공백’과 ‘몽유병자’가 만난다. 김용길과 조수의 농담이 독고민의 ‘인식공백’의 순간으로 투입하여 그 자리에 ‘몽유병자’가 ‘기입’될 수 있는 것이다. 독고민은 지금 현대 의학에 토대한 진단이 아닌 의사와 조수의 말 속에서, 그 둘의 부도덕한 교환 속에서 몽유병자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듯 의사와 조수는 해부실에서 독고민을 해부용 시체로 사용하는 데 공모하며 간호부장을 호출한다. 그런데 간호부장의 행동이 의사와 조수의 그것과 다르다.

인부들 손에만 맡기게 되는 이 시체실은 늘 손질이 바쁘다. 부장은 시체 쪽으로 돌아섰다. 시체는 앉아 있다는 것 말고도 또 하나 몸매에 부자연한 것이 있다. 오른팔을 들어서 얼굴을 반쯤 가리듯한 채 굳어 있는 것이다. 마치 애인의 첫 키스를 막는 처녀의 자세처럼. 눈은 편히 떴다. 아까 첫눈에 그녀는 지난 4

월에 잃은 아들을 보는 듯싶었다. ... 그녀는 손을 시체의 얼굴로 가져갔다. 편히 뜯 눈꺼풀을 내리췌었다. 몇 번 만에 눈은 감겨졌다. 나무관세음보살. 다음에 시체의 얼굴을 가린 팔을 아래로 당겨봤다. 시체는 완강하게 고집한다. 그녀는 가슴이 각 막혔다. 얼른 돌아서서 방을 나왔다. 빗장을 지르고 자물쇠를 물렸다. 본관과 이어지는 복도를 하이힐을 조용히 울리며 걸어 나온다. (341면)

간호부장은 시체실에 있는 동사자를 지난 4월에 잃은 아들인 듯이 느낀다. 그런데 ‘시체’가 ‘편히’ 눈을 뜨고 있고 간호부장이 손길을 완강하게 거부한다. 간호부장 눈에는 ‘시체’가 살아있는 것이다. 독고민을 연고자 없는 몽유병자로 치부하고 해부용으로 쓰기 위해 의사와 조수가 공모하고 여기에 간호부장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그런데 간호부장이 ‘시체’가 있는 시체실을 잠금으로써 시체는 우선 ‘보호된다.’ 그리고 다시 4월인데,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생각하며 흐느끼던 간호부장이 어떤 행동을 개시한다. 이러한 ‘신경외과 의사의 서사’는 ‘고고학자의 서사’와 연결된다. 시점도 ‘고고학자의 서사’에서는 어느 미래의 시점으로 이동한다.

『아라비안 나이트』...그 얘기 속에서 알리바바의 욕심쟁이 형이, 도적들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는데, 알리바바는 형의 시체를 찾아다 놓고 몹시 걱정하지만, 여종의 피로 탈 없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즉 신기료장수를 데려다 시체를 께매 붙여서, 감쪽같이 사람들 눈을 속인 것입니다. 이 신기료장수는 해부사解剖師의 반대 작업을 한 것입니다. ...
...우리는 동상凍傷 취급합니다. 우리들의 작품을 가리켜 생명에 넘쳤다니, 창조적이라느니, 허구虛構의 진실이라느니 하고 칭찬할 때는 사실 낮간지러워 집니다. 고고학자란 목숨이 아니라 죽음을, 창조가 아니라 발굴發掘, 예언이 아니라 독해讀解를 업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342-343면)

고고학자는 고고학을 신기료장수의 일에 빗대어 설명한다. 신기료장수를 데려와 알리바바 형의 장례를 탈 없이 치르게 했다는 피바른 여종이 ‘신경외과 의사의 서사’에서 동사한 ‘시체’를 의사와 조수로부터 보호한 간호부장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고고학자의 동상취급자로서의 권리주장은 김용길과 조수가 무연고 동사체로 발견된 독고민을 해부용 시체로 사용하기 위해 공

모했던 문제의 상황을 발설하는 묘수로 기능한다.

고고학자는 발굴과 독해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폐허지의 파편들을 끼워 맞추므로써 사라진 역사를 해독한다. 고고학자가 ‘고고학 입문 시리즈’로 제작한 영화 가운데 한 편이 성탄절 기념 초대 시사회에서 상영된다. ‘조선 인원인고朝鮮人原人考’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고고학자가 “최근에 파낸 어느 도시의 진모”를 보이는 것으로서 이때 ‘도시’는 “상고시대 어느 왕조의 서울로 짐작”된다. 고고학자가 ‘성탄절 기념 초대 시사회’에서 특별히 이 영화를 선택한 것은 거기에 “한국 유적”의 “황폐성과 무질서성이, 아주 본보기로 나타나 있는 까닭”(346)에서다. 고고학자가 제작한 이 영화를 같은 미래의 시점에서 연인이 관람하고 나누는 대화가 ‘연인의 서사’다.

불이 켜졌다. 사람들은 우르르 일어서서 드나들 문으로 천천히 밀려나온다.
... 음력 4월 초파일이다. 성탄을 기리는 꽃불이 도시 하늘을 눈부시게 수놓았다. 음향관계가 풀린 공기 속에는, 즐거운 가락이 안개처럼 울려 퍼져 있다. 두 연인은 나란히 보도를 걸어간다. 가로등 빛에 박꽃처럼 환한 여자의 왼쪽 볼에 까만 점이 귀엽다. 남자는 빨간 넥타이를 땀다. 말없이 걷는다.
...

여자가 남자의 옆모습에 눈을 주며 입을 연다.

“민!”

“.....”

이쪽은 말이 없이 눈으로 대답.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랑했을까?”

남자는 그 물음에도 여전히 대답이 없이 우뚝 걸음을 멈춘다. 여자도 선다. 남자가 두 손으로 여자의 팔을 잡는다. 그녀의 눈동자를 들여다본다. 신기한 보물을 유심히 사랑스럽게 즐기듯.

“깡통. 말이라고 해? 끔찍한 소릴? 부지런히 사랑했을 거야. 미치도록. 그밖에 뭘 할 수 있었겠어.”

남자는 잡고 있던 여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팔을 넣어, 등판으로 거슬러올라가서, 두 손바닥으로 여자의 부드러운 뒤통수를 꼭 붙들어서 꼼짝 못하게 만든 다음, 입을 맞춘다. 오랫동안. (347-350면)

여자가 영화의 대해 묻는데 남자-민은 말보다는 주로 눈으로 대답한다.

그런데 여자를 신기한 보물을 ‘즐기듯’ 들여다보는 데서 민의 눈은 “믿음성 없는 애인의 속셈을 대변에 알 수 있는”²⁸⁾ 그런 눈이다. 민과 여자의 행동은 사랑하는 연인으로 보기에 석연치 않은데 여자와 입을 맞추기 위한 민의 행동은 폭력적이다. 민과 여자의 그러한 포즈는 사랑하는 연인의 그것이라기보다 어떤 환멸이 배태된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²⁹⁾ 이러한 해석은 “그런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랑했을까”하는 여자의 물음에 민이 “부지런히 사랑했을 거야. 미치도록. 그밖에 뭘 할 수 있었겠어”라고 대답하는 데서 보다 분명해진다. ‘그밖에’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것도 ‘미치도록’ 하는 행위는 ‘사랑’보다 환멸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마치 「광장」에서 이명준이 남북 정치이데올로기에 환멸을 느끼고 낙동강 싸움터에서 은혜와 오직 사랑 밖에 할 것이 없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그러한 민의 말 속에서 그들은 ‘두 눈을 가리고 손바닥 두 개만 한 어둠의 평화 속에서 사랑 밖에 달리 할 일이 없는 혈거인’³⁰⁾으로 포착된다. 여기에서 ‘혈거인’의 연원을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고학자의 영화 ‘조선원인고’에서 ‘원인(原人)’이 전경으로 내세워지며 발굴된 유물인 ‘남녀 포옹상’이 소개된다. 최근에 발견된 이 유물은 “한 팔로 남자의 목을 감고 입을 맞추고 있는 여인의 다른 손에는 비수가 들려있고, 그 쇠붙이는 남자의 옆구리로 슬그머니 다가가는 몸매대로 굳어 있”³¹⁾다. 그

28) 최인훈, 「열하일기」(1962), 『웃음소리』, 문학과지성사, 2009, 185면.

29) 선행연구에서 연인의 입맞춤은 “죽음을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배현자, 「김만중의 「구운몽」과 최인훈의 「구운몽」에 드러난 환상성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27,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278면.), “죽은 자의 미완의 꿈이 미래로 송신”된 것으로서 “첫 키스”(권명야, 앞의 글, 306면), “서사에 투영된 희망적인 기대”(박진, 「새로운 주체성과 ‘혁명’의 가능성을 위한 모색-최인훈의 「구운몽」 다시 읽기」, 『현대문학이론연구』6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209면)로 긍정된다. 그런데 여자와 민의 행동은 사랑하는 연인의 포즈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30) “...아무 준비도 없이 어둠만을 들여다보게 된 운명 앞에서 눈을 가리고 손바닥 두 개만 한 어둠의 속에서 혈거인처럼 퇴화하고만 싶은...” (최인훈, 「주석의 소리」(1968), 『총독의 소리』, 문학과지성사, 2009, 76면.)

31) 이 형상은 「독고민의 서사」에서 그녀가 자신의 사명을 잇고 수령(독고민)에 대한

리고 남자 화석의 “머리는 신부. 얼굴은 배우. 가슴은 시인. 손은 기술자. 배는 자본가. 성기는 말의 그것. 발은 캥거루의 족부.”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눈알이 있을 자리에는 현미경 렌즈가 박혀 있”(345)다. 독고민이 한꺼번에 선생님·사장님·여보·교황 사절·수령이 되어 자기분열을 체현한 ‘남자’, ‘숙’은 사랑과 배신을 양손에 들고 있는 ‘여자’와 연관된다. 이 둘의 관계가 어느 미래의 고고학자가 제작한 영화 ‘조선인원인고’에서 ‘남녀 포옹상’을 통하여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같은 미래 시점에서 고고학자의 영화를 본 연인이 ‘남녀 포옹상’에서 ‘혈거인’을 읽어낸 것인데 이때 혈거인은 연인의 현실을 지시하는 표지에 다름 아니다. 연인이 ‘음향관제’³²⁾의 통제적인 정치현실 속에 있는 것이다.³³⁾ 초과일이어서 음향관제의 통제가 카니발처럼 풀렸지만, 믿음 없는 애인은 사랑하는 행위 말고 달리 할 일이 없는 혈거인과 진배없으며 “그들의 입맞춤은 끝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우리는 최인훈이 미래 어느 시점의 ‘연인의 서사’를 선회하며 독고민과 숙, 그 둘의 환멸이 배태된 사랑

작사랑이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며 수컷을 잡은 암호랑이처럼 자랑스러워했던 상황을 연상시킨다.

- 32)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에서 방공정책의 일환으로 등화관제와 더불어 음향관제가 실시되었다. “전조선 반공의 통첩 음향관제 즉시 실시; 이십삼일아침 지나 비행기 수대가 대북을 공습하였다는 정보가 있었는데 감하여 조선에서도 상당한 경계를 요하므로 총독부에서는 이십사일 전조선각도지사에게 다음과 같은 요항의 전보통첩을 발송하여 관계육군사령부와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조선방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다하였다 한다.”(동아일보, 1938. 02. 05, 정치2면); 1960년대는 소음 방지를 위해 음향관제를 실시했다. “서울시경은 15일 상오 시내 주요도로에서 차양의 클랙손을 관제함으로써 시민들의 소음 노이로제를 제거하기 위해 시내 24개소에 걸쳐 소음 방지 및 음향관제 구역을 설정했다.”(경향신문, 1962. 6. 5. 사회3면) ‘반공’(정치)에서 ‘소음 방지’(사회)로 목적이 바뀐 듯하지만 5·16 이후의 한국의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초반 한국의 억압적이고 폐쇄적인 정치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 33) 최인훈 소설에서 ‘크리스마스’는 외래 문화가 한국사회에 왜곡된 형태로 수용되고 현실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기 위한 소재로 다루어진다.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에서 ‘크리스마스’ 문화가 다각도로 풍자된다. ‘초과일’은 ‘크리스마스’에 대비적인 소재로 「구운몽」에서 ‘초과일’이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마스 캐럴」 연작에서 이브 때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는데 비해 「구운몽」은 초과일에 ‘음향관제가 풀린’ 것으로 표현된다.

을 황폐성과 무질서성의 본보기로 이야기되는 한국 유적, 즉 상고시대의 폐허에 등치시키고 있는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벤야민의 역사 이해를 원용하면, 역사는 회고적으로만, 점차적인 소멸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대상의 참된 성격이 드러나며 ‘이후 삶’은 ‘원사’를 해명한다.³⁴⁾ 그렇게 볼 때 「구운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역사의 ‘원사’는 독고민의 경험한 ‘인식공백’의 시간이다. 그리고 후사는 ‘몽유병자’와 ‘혈거인’의 표지이다. ‘독고민의 서사’에서 간판사이며 숙을 찾고 있다는 독고민의 입장[정체성]은 끝까지 관철되지 못했다. 독고민은 자기시대에 ‘몽유병자’가 되었으며 미래 어느 시점에서든 독고민의 정체성은 회수되지 않으며 혈거인으로 독해된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독고민이 몽유병자와 혈거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독고민을 자신들의 입장에 따라 호명한 무리의 사람들은 구원예의 망상과 몽유의 상태에 있으며 이와 반대로 독고민은 시대적 환상을 갖지 않고 타자의 지배를 받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졌던 [주권적] 개인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개인’이 자기시대와 어느 미래의 규정 속에서 몽유병자로 만들어지고 혈거인으로 발굴된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독고민이 속한 자기 시대의 병리학적 증상, 미래 어느 시대의 퇴행적 증상이 독고민 개인에게 전가된 것이 된다. 「구운몽」이 “5·16에 대한 작가의 정치적 반응으로 쓰여진 소설”³⁵⁾이라는 사실에 오류가 없다면, 최인훈의 「구운몽」에서 독고민을 통하여 5·16의 허위와 폭력성 그리고 세계의 기만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이다.³⁶⁾ 「구운몽」에서 4·19가 망실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에서 5·16의 심각성이 더 극대화된다. 여기에서 최인훈은 주권적 개인을 보여주었던 독고민, 폐허의 지층에 묻혀 떠오르지 못하고 있는 그 4·19의 혁명성의 본질을 알레고리적 방법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34) 그램 질로크, 노명우 역,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225면 참조.

35) 김인호, 「사랑과 혁명의 미로」,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2010, 387면.

36) “허위의 세계 안에 있는 자신을 보여주는 것은 자기를 인식하는 행위이며 세계의 기만성을 드러내는 일”(장사흠, 「최인훈 소설의 정론과 미적 실천 양상」,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4, 81면.)

4. 결론을 대신하여 - 혁명에 대한 성찰적 주체의 환기

키스 켄킨스는 “역사란 어떤 집단이나 계급이 과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거기에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³⁷⁾이라고 정의했다. 우리가 ‘역사’라는 이름으로 대하게 되는 것들은 역사가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과거에 대한 구성물이라는 것이다. 최인훈은 「구운몽」에서 켄킨스의 이 ‘역사’를 문제제하고 있다. 4·19를 응당한 ‘역사’로 만들어야 한다는 내밀한 전언이 「구운몽」에 들어 있는 것이다.

「구운몽」의 ‘연인의 서사’에서 보였듯이 선취한 미래, 즉 현재의 시점에서 ‘혁명’은 서사주체인 연인에게 ‘망실’된 것으로 경험된다. 최인훈의 ‘소설가 소설’에서 ‘구보’가 “역사라는 것은 인체의 팔다리 같은 것과 달라서 잊어버리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³⁸⁾라고 했듯 4·19는 켜켜이 쌓인 퇴적물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최인훈이 「구운몽」에서 4·19를 망실된 것의 자리에 놓은 까닭도 여기에 있다.

4월을 말할 때 공리론은 무의미하다. 그것은 신화였던 것이다. 그날의 대열에 참가한 아이들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 그날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을 동일시하지 말라. 그날의 당신은 당신이 아니었다. 신화는 한 번 표현되면 다시 지우지 못한다. 4월은 인간이기를 원하는 한국인의 고향이 되었다. 그것은 신라보다 오래고 고구려보다 강하다. 인간의 고향이기 때문에 오래고 오래며 자유의 대열이기 때문에 강하다. 결국 인생을 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4월의 아이들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최초의 한국인이었다. 그들과 더불어 새 시대가 되었다. ‘자기’가 되고자 결심한 인간, 정치로부터의 소외를 행동으로 극복한 인간만이 살 자격이 있으며 저 위대한 서양인들과 어깨를 겨누고 ‘세계인’이 될 힘을 가졌다.³⁹⁾

최인훈은 ‘자기’가 되고자 결심한 인간, 정치로부터의 소외를 행동으로 극

37) 키스 켄킨스, 최용찬 역,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혜안, 2002, 117면.

38) 최인훈,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1972), 문학과학지성사, 2011, 133면.

39) 최인훈, 「세계인」, 『유토피아의 꿈』, 문학과학지성사, 2010, 100면.

복한 인간만이 살 자격이 있으며 ‘세계인’이 될 힘을 가진다고 보았다. 작가에게 ‘4월’은 ‘인생을 살기를 위한 최초의 한국인’, 비로소 ‘세계인’의 힘을 가진 ‘4월의 아이들’과 더불어 시작된 ‘새 시대’이다. ‘4월’은 그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니며 우리에게 한 번 표현되고 다시 지우지 못하는 ‘신화’로 있다. 그런 점에서 최인훈은 4·19를 우리의 ‘역사’의 시원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이때의 세계인이 ‘주권적 개인’의 의미와 상통한다. 니체에 따르면 인간은 주권적 개인이 될 때 비로소 인간이며 주권적 개인으로 자신을 길러내는 것은 개인의 실존적 과제가 된다. 그러한 주권적 개인으로의 고양이 인간[인류] 전체의 보편적 과제이며 국가[세계]의 정의로움은 바로 주권적 개인에 의존한다.⁴⁰⁾ 작가적 의식의 연원에 비추어 최인훈이 4·19의 정신과 연결짓고 있는 세계인의 속성이 니체의 주권적 개인의 그것과 상통한다. 최인훈은 「구운몽」에서 세계인 즉, 주권적 개인의 담지자로서 독고민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듯 작가가 추구한 역사의 원형 표상은 현재의 구제를 염두에 두고 기원으로서의 4·19에서 ‘세계인’으로서 ‘4월의 아이들’을 발견한 데 있다. 독고민이 감옥에서 만나는 죄수들은 사회에서 ‘추방된 자’⁴¹⁾의 위치에서 그러한 세계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독고민을 비롯해서 모든 죄수들이 ‘투시하려 한 죄’, ‘결론을 내려고 한 죄’, ‘잊어버리지 않는 죄’의 죄목들로 감옥에 갇힌 것은 ‘권력’에 대해 부정적 정신을 가짐으로써 처벌되고 터부로서 소외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4·19가 ‘기적과도 같은 초유의 자발성 속에서 어떤 환멸도 겪지 않는 순결한 젊은이들의 사건, 한 점 균열 없이 황홀할 만큼 일체화된 공동의 경험’⁴²⁾이었다고 할 때, 「구운몽」에서 독고민과 죄수들은 “1789년 여름 바스티유로 달려가던 그 인민들”⁴³⁾, 그 젊은이에 다름 아닌 것이다.

40) 백승영, 앞의 책, 2117-237면 참조.

41) “기존의 사회에서 ‘추방된 자’의 위치야말로, 의문의 형식이든 선언의 형식이든, 사회 체제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핵심이 된다.”(양창아, 「하나 아렌트의 ‘혁명론’의 시작」, 『코기토』71,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2, 348면.)

42) 권보드래·천정환, 앞의 책, 28면.

43) 최인훈, 위의 글, 같은 면.

최인훈이 4·19의 정신을 역사의 시원으로 파악한 바, ‘혁명’은 과거, 역사의 어느 지층에 그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가 ‘지금-여기’로 불러들일 때, 그때에야 비로소 열리게 되는 ‘집단적 무의식’으로서의 실현 ‘가능성’이 형상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구운몽」에서 ‘혁명’이 1960년 동시대인들, 미래의 어느 연인이 나누는 대화 속에서 ‘망실’된다. 시대의 환상을 품지 않고 주권적 개인이고자 했던 독고민이 동시대, 미래 어느 시대에 몽유병자가 되고 퇴화한 혈거인이 된 것은 어떤 시대가 개인에게 그 시대의 병리학적, 퇴행적 증상을 전가한 것으로 서사화되어 있다. 「구운몽」은 이러한 퇴행적 징후를 되묻는 텍스트의 형식을 취한다.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에서 주인공 스티븐이 “역사란 내가 깨어나려 애쓰는 악몽이다.”라고 말한 것을 프레드릭 제임슨은 “그러나 먼저 악몽의 넓이와 그 세기를 헤아려보지 않고는 악몽에서 깨어날 수가 없다.”는 것으로 되받아 해석하고 있다.⁴⁴⁾ 「구운몽」은 정확히 이 지점에서 서사적 의미가 구체화된다.

최인훈이 ‘인간이기를 원하는 한국의 고향’으로 파악했던 4·19를 폐허가 되게 한 5·16은 작가에게 악몽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1960년대 초 정치현실의 악몽에서 깨어나기 위해 악몽의 넓이와 세기를 헤아려 본 실험이 「구운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악몽의 내용이란, 주권적 개인이 되고자 했던 독고민이 ‘몽유병자’로 취급되고, 선취한 미래 연인에게 퇴화된 ‘혈거인’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관계된다. 그런데 연인 역시 이 음향관계의 통제적인 정치현실 속에 있다는 것, 연인이 독고민을 ‘혈거인’으로 포착한 것은 그들의 정치현실을 읽어낸 것에 다름 아니다. 김만중의 『구운몽』의 마지막에서 성진에게 육관대사가 “너의 꿈은 오히려 아직 깨지 않았다”⁴⁵⁾고 말하며 일침을 가하듯이 연인 역시 악몽 속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최인훈의 「구운몽」은 5·16의 악몽을 서사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4) 프레드릭 제임슨, 여홍상·김영희 역, 『맑스주의와 형식』, 창비, 2014, 354면.

45) 성진이 양소유의 꿈-통속적 욕망의 세계-에서 깨어 육관대사에게 불도자로서 깨달은 바가 크다고 말하자 이에 육관대사가 성진을 크게 가르치는 말이다. 이후 성진은 팔선녀와 더불어 적멸(寂滅)의 도를 얻는다. (김만중, 정규복·진경환 역주, 『구운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996, 326-9면 참조.)

독고민이라는 ‘주권적 개인’이 역사의 응당한 이름으로 구체되지 못하고 몽유병자와 헐거인으로 인식되는 악몽 속에 갇혀 있지만, 그 악몽에서 깨어날 출구가 간호부장에 의해 시체실에 보호된 독고민을 향해 미약하게나마 열리고 있다. ‘지금-여기’로 독고민을 불러내서 구제함으로써 ‘혁명’의 이름으로 서명할 때 비로소 ‘역사의 연속체’를 ‘폭파’할 수 있다는 내밀한 전언을 환상의 형식으로 보여준 것이 「구운몽」이다. 최인훈은 4·19와 5·16이 뒤섞여 있는 1960년 초반을 고고학적 탐색을 통해 그 폐허의 흔적을 이미지화함으로써 미래의 희망이 그 속에 어떻게 내재되어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구운몽」은 자기가 속한 시대에 대한 성찰적 주체의 개입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그 문학적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최인훈, 『광장/구운몽』(전집1), 문학과지성사, 2012.
-----, 『회색인』(전집2), 문학과지성사, 2012.
-----, 『웃음소리』(전집8), 문학과지성사, 2009.
-----, 『충독의 소리』(전집9), 문학과지성사, 2009.
-----, 『유토피아의 꿈』(전집11), 문학과지성사, 2010.
-----, 『문학과 이데올로기』(전집12), 문학과지성사, 2009.
-----, 『화두1』(전집14), 문학과지성사, 2008.

2. 단행본 및 논문

- 권명아, 「죽음과의 입맞춤: 혁명과 간통, 사랑과 소유권」, 『문학과 사회』
2010 봄호.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상상, 2012.
김기주, 「상징계 진입의 고통, 혹은 표류하는 기호들-최인훈 「구운몽」
새롭게 읽기」, 『한국문학이론과 비평』7,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0.
김만중, 정규복·진경환 역주 『구운몽』,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96.
김미영, 『최인훈 소설 연구』, 깊은샘, 2004.
김인호, 「사랑과 혁명의 미로」, 『광장/구운몽』, 문학과지성사, 2010
김항, 「알레고리로서 4·19와 5·19」, 『상허학보』30, 상허학회, 2010.
문광훈, 『가면들의 병기창』, 한길사, 2014.
박진, 「새로운 주체성과 ‘혁명’의 가능성을 위한 모색-최인훈의 「구운몽」
다시 읽기」, 『현대문학이론연구』62,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배현자, 「김만중의 「구운몽」과 최인훈의 「구운몽」에 드러난 환상성 고찰」,
『현대문학의 연구』27, 현대문학연구학회, 2005.
백승영, 『니체』, 한길사, 2015.

- 서은주,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방송의 소리’ 형식 연구」, 『배달말』30, 배달말학회, 2002.
- 설혜원, 「최인훈이 몽유소설 연구-「구운몽」 「금오신화」 「서유기」를 중심으로」, 중앙대 박사학위논문, 2015.
- 성지연, 「최인훈 문학에서의 ‘개인’에 관한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2003.
- 양창아,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의 시작」 『코기토』71,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2.
- 여인석, 「라메트리의 인간기계론과 뇌의 문제」, 『의철학 연구』7, 한국의철학회, 2009.
- 이인숙, 「최인훈 소설의 담론 특성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8.
- 장사흠, 「최인훈 소설의 정론과 미적 실천 양상」,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04.
- 정영훈, 『최인훈 소설의 주체성과 글쓰기』, 태학사, 2008.
- 최은혁, 「최인훈 소설에 나타난 양가성 표출 양상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2016.
- 최현희, 「반복의 자동성을 넘어서-최인훈의 「구운몽」과 정신분석학적 문학 비평의 모색」, 『한국문학이론과 비평』34,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07.
- 합석현, 『인간혁명』, 일우사, 1961.
- , 「5·16을 어떻게 볼까」(1961.7), 『사상계 영인본』, 1989.
- 그람 질로크, 노명우 역, 『발터 벤야민과 메트로폴리스』, 효형출판, 2005.
- 발터 벤야민, 김영옥·황현산 역, 『보들레르의 작품에 나타난 제2제정기의 파리/보들레르의 몇 가지 모티프에 관하여 외』, 길, 2013.
- 발터 벤야민, 최성만 역,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발터 벤야민 선집5』, 2009.
- 제라르 즈네트, 권택영 역, 『서사담론』, 교보문고, 1992.
- 키스 켄킨스, 최용찬 역,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해안, 2002.
- 프레드릭 제임슨, 여홍상·김영희 역, 『맑스주의와 형식』, 창비, 2014.
- 한나 아렌트, 홍원표 역, 『혁명론』, 한길사, 2004.

【Abstracts】

The Cloud Dream of the Nine: An Allegory on the Revolution

Choi Yoon-gyeong · Lim Hwan-mo

The significance of the Cloud Dream of Nine is clearly emerged when we look into the work with an allegorical interpretation on a political issue mingled with the 19th of April and the 16th of May in the early 1960s. Such events actually happened over a period of a year and can be told pivotal historical incidents in the early 1960s of South Korea. However these two historic events are displayed at the same time in CDN. The 19th of April is experienced to Dok Go-MIn, the protagonist as a forgotten revolution in the narrative structure in which the temporal order has been dismissed. Choi In-Hoon apprehends the April Revolution as a source of 'history' since he has figured out that an energy is immanent as well as being 'cosmopolitan' within the spirit of the 19th of April. Such cosmopolitan communicates with the 'sovereign individual' in sense. 'Dok Go-MIn' represents the birth of the 'sovereign individual' embodied life in person, in CDN, than he accepts social norms and compulsions. Dok Go-MIn is now inaugurated as a sleepwalker and is excavated as a degenerated troglodyte. He then become an allegory on a forgotten revolution per se. Hence it can be significant that a certain era imputes symptoms of pathology and regression of the time to an individual. The CDN, in particular, incubates a clandestine message that the 19th of April revolution can be deserved as a part of 'history' and it

ventilates the intervention of introspective subject about the time as well. Therefore, in these respects, Choi In-Hoon's CDN has an unusual literary meaning.

Key words: The Cloud Dream of the Nine, Sovereign Individual, Forgotten Revolution, Introspective Subject.

이 논문은 2017년 5월 31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7월 3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7년 7월 4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